

Title: The life and ministry of John the baptist: study 1

Scripture: Malachi 4:1-6

Date preached: November 14th 2021**Scripture: Malachi 4:1-6**

**1 “For behold, the day is coming,
 Burning like an oven, And all the proud, yes, all who do wickedly will be stubble.
 And the day which is coming shall burn them up,”
 Says the LORD of hosts, “That will leave them neither root nor branch.
 2 But to you who fear My name
 The Sun of Righteousness shall arise
 With healing in His wings; And you shall go out
 And grow fat like stall-fed calves.
 3 You shall trample the wicked, For they shall be ashes under the soles of your feet
 On the day that I do *this*,” Says the LORD of hosts.
 4 “Remember the Law of Moses, My servant,
 Which I commanded him in Horeb for all Israel, *With the* statutes and judgments.
 5 Behold, I will send you Elijah the prophet
 Before the coming of the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6 And he will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to the children, And the hearts of the children to their fathers,
 Lest I come and strike the earth with a curse.”**

1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용광로의 불과 같은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질 것이며 그들 중에는 하나도 살아 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2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며 너희는 나가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처럼 뛰어 다닐 것이다. 3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너희가 악인을 짓밟을 것이며 그들은 너희 발밑에 있는 재와 같을 것이다. 4 “너희는 내가 시내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내 종 모세에게 준 법과 규정을 기억하라. 5 “보라! 나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겠다. 6 그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서게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저주로 치겠다.”

Introduction

Today I'm beginning something new. Trying something new is exciting, but also a little bit scary. It's scary because I'm not sure how it will go. What we are about to begin is a series of sermons focusing on just one New Testament character. A biographical study series.

This will mean we will be looking at a number of biblical books and not focusing on just one book and following it from beginning to end as we usually do. I'm excited and I hope you are too.

The focus of our study is the remarkable and enigmatic figure of John the baptist. He's enigmatic in the sense that for such an important biblical figure much of his life is shrouded in mystery. Take a moment now to think about what you know about him. I bet all of you know the following things about John.

- He wore uncomfortable clothes and lived in the wilderness.

- His diet was locusts and honey.
- His job was to point people to the coming messiah.
- He baptised people in the Jordan river, he even baptised Jesus.
- King Herod the tetrarch cut his head off.

But beyond this what do we know? Well this study will I hope bring John to life and help us see and appreciate just how amazing he really was. But don't just take my word for it. This was what our Lord and savior said about John.

“Assuredly, I say to you, among those born of women there has not risen one greater than John the Baptist; but he who is l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is greater than he. (Matthew 11:11)

In case you missed it let me put it more simply. In all human history there has never been a man born greater than John. That's quite an amazing statement. We know that prideful human being often make claims about their own greatness. The boxer Muhammed Ali for example described himself as the greatest. But this is not John making the claim about himself, this is God saying it about John. This puts John above all the prophets and patriarchs of the Old Testament. For all the great and wonderful deeds they performed none came close to John. God you see sent John for a unique purpose. He acted as the bridge that connected the old covenant to the new. His role was to announce the arrival of the one God sent to save; the Messiah. And yet despite his role and the accolades and adulation he received John remained humble and focused on his mission. Nothing ever distracted him from pointing people to Christ. He is I hope you would agree a worthy figure to study and learn from.

오늘 저는 새로운 것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단 한 명의 신약성경의 인물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설교입니다. 전기 연구 시리즈. 이것은 우리가 한 권의 책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가 평소 하던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지 않고 많은 성경 책을 보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나는 흥분하고 당신도 바랍니다. 우리 연구의 초점은 세례 요한의 놀랍고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그러한 중요한 성서 인물에 대해 그의 삶의 많은 부분이 신비에 싸여 있다는 점에서 수수께끼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 모두가 John에 대해 다음 사항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불편한 옷을 입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 그의 식단은 메뚜기와 꿀이었습니다.
- 그의 임무는 사람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 그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 분봉왕 헤롯이 그의 목을 잘랐다.

그러나 이것 이상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 연구가 John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우리가 보고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주님과 구주께서 요한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마태복음 11:11) 농친 경우를 대비하여 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인간이 종종 자신의 위대함을 주장한다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 권투 선수 Muhammed Ali 는 자신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이 자신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을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족장 위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위대하고 기이한 일에도 요한에게 가까이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당신이 보는 하나님은 독특한 목적을 위해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분의 도착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그러나 그의 역할과 찬사와 찬사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겸손하게 자신의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연구하고 배울 가치 있는 인물에 동의하기를 바랍니다.

Study plan

This will be a seven sermon series. Today we will begin by setting the stage.

1	Setting the stage
2	John's godly parents
3	The miraculous birth of John
4	The life and ministry of John part 1
5	The life and ministry of John part 2
6	John and Jesus
7	The death and legacy of John

Setting the stage

We are all products of the time and place in which we were born and grew up.

I was born and grew up in the UK of the 1970's and 80's. My wife was born and grew up at exactly the same time but in a very different place. She was born and grew up in South Korea. Korea and the UK were, and are very different culturally, politically and socially. Although my wife and I share some things in common we have many notable differences. These differences are a result of the specific shaping influences of our respective cultures. My point is this, if you want to know why I or my wife think or act in a certain way you would need to examine the things that shaped or impacted us. The same is true for any figure in history. People are products of their time and place.

This is certainly true for John the baptist. He was born at what would be the pivotal point in all human history. And naturally he was shaped by the political, social and religious world of his day. So I want to take the time today to briefly talk about the world that John was born into and how that had been shaped since the Old Testament ended.

Our reading today was taken from the last book of the Old Testament, the words of the prophet Malachi. His prophecy from God ends the period that we term the Old Testament. Let me briefly summarise what happened to God's chosen people at the close of this period of history. The Assyrian empire conquered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in 722 BC. Many thousands of Jews were taken into exile and the Assyrians brought other conquered peoples to live in Palestine.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lasted for a further 136 years before it was conquered by the Babylonians in 586 BC. Again many Jews were taken away into exile. This time of exile is known as the Babylonian captivity and lasted for 70 years. It ended when the Babylonian empire was defeated by the armies of Persia in 538 BC. The Persian ruler Cyrus the Great allowed a small group of Jews to return in 539 BC. This is where the Old Testament story ends. With God's people back in the land but under Persian rule.

And then we are confronted by period of empty time and space. We close the bible at Malachi and turn the page to Matthew. We encounter God's chosen people who are in the same geographic location but much has changed. This is not surprising when we appreciate that approximately 400 years have passed. This period of time is known by a variety of terms. It is referred to as the; "Intertestamental period," "the four hundred silent years" or by Jews as the "Second temple period."

God may indeed have been silent in terms of giving a word to His prophets but He was very active in shaping and moulding history. He was preparing the ground or setting the stage for the greatest moment in all human history. The arrival of the Messiah. So my plan today is to give you a brief introduction into what happened during those 400 years. This will help set the stage for the arrival of John and the message God sent him to deliver.

우리는 모두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시간과 장소의 산물입니다. 저는 1970 년대와 80 년대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 아내는 정확히 같은 시기에 태어나고 자랐지만 매우 다른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한국과 영국은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달랐습니다. 아내와 나는 몇 가지 공통점을 공유하지만 우리에게 눈 에 띄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문화의 특정한 형성 영향의 결과입니 다. 제 요점은 저와 제 아내가 왜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지 알고 싶다면 우 리를 형성하거나 영향을 미친 것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어떤 인물이든 마 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시간과 장소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확실히 해당됩니 다. 그는 모든 인류 역사의 중추적인 시점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는 당대의 정치, 사회, 종교 세계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이 태어난 세상과 구약 이 끝난 이후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 다. 오늘 우리의 독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하나님 으로부터의 그의 예언은 우리가 구약성경이라고 부르는 기간을 끝냅니다. 이 역사의 마지 막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앗수르 제국 은 기원전 722 년 북이스라엘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수천 명의 유대인이 유배되었고 아시 리아인들은 다른 정복된 민족들을 팔레스타인에 살게 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 년에 바빌론에 의해 정복되기 전까지 136 년 동안 더 지속되었습니다. 다시 많은 유대 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 포로 기간은 바벨론 포로로 알려져 있으며 70 년 동안 지속되 었습니다. 기원전 538 년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의 군대에게 패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페 르시아 통치자 키루스 대왕은 기원전 539 년에 소수의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것을 허용했습 니다. 여기에서 구약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돌아왔지만 페르시아 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공허한 시간과 공간의 시대와 마주하게 된 다. 우리는 말라기에서 성경을 닫고 마태복음을 펼칩니다. 우리는 같은 지리적 위치에 있지 만 많이 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납니다. 약 400 년이 흘렀음을 알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기간은 다양한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 "사백 년" 또는 유대인들에 의해 "제 2 의 성전 기간"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면에서 침묵하셨을지 모르지만 역사를 형성하고 형성하는 데는 매우 활동적이었습 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거나 무대를 마련하고 있 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 그래서 오늘 제 계획은 그 400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 한 간략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도착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지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he political situation

The intertestamental period was a time of great change and instability. We can divide the period into

four political divisions as different empires conquered and controlled the region.

We begin with the Persians. As rulers go they were fairly easy going especially when compared to Assyria or Babylon. The Persians allowed conquered peoples a degree of freedom and the Jews were allowed to worship without restraint.

The Persian period came to an end with the arrival of the Greeks. Alexander the Great and his army marched down from Macedonia and in a short time had taken over the region. This ushered in what is known as the Hellenistic period. Alexander believed that Greek culture (Hellenism) was the force that would unite the world.

The Jews at first were deeply resistant to Greek culture and its influences. In fact the struggle against it would be very long and bitter. Probably the most important impact of the arrival of the Greeks was in language. The Greek language (*koine* or common Greek) became the lingua franca of the day. It was the language used for trade and commerce and over time even became the language of the ordinary people on the streets. In terms of religious freedoms the Greeks at first were open and permissive. Alexander allowed the Jews to freely practice and observe their religion. When he built Alexandria in Egypt he encouraged Jews to move there. It was here that the Greek translation of the Hebrew scriptures (the Septuagint) would take place beginning in 250 BC. When Alexander died in 323 BC his empire was divided up among his leading generals into four parts. The two most important became the Ptolemaic empire based in Egypt and the Selucid empire based in Syria.

The Hellenistic period came to an end with the Jews outraged against the harsh and oppressive rule of the Selucid Empire. The Ptolemeis had permitted Judaism but the Selucids were determined to force Hellenism upon them. The Jews revolted under the leadership of Judas Maccabeus and his five sons. The revolt led to a 24 year war which ended with the Jews driving the Selucids from the land and Jewish independence. This was the Hasmonean period.

The Hasmonean period ended in 63 BC when the Roman general Pompey captured Jerusalem and the surrounding lands. Palestine became subject to Rome and was governed through a series of governors or vassal rulers such as Herod the great. The Romans brought a certain degree of peace and stability to the ancient world. Their amazing road network for example would allow the gospel message to spread quickly.

구약 시대는 큰 변화와 불안정의 시대였습니다. 서로 다른 제국이 이 지역을 정복하고 통제함에 따라 이 기간을 4개의 정치적 구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어로 시작합니다. 통치자가 가면서 그들은 특히 앗수르나 바빌론과 비교할 때 상당히 쉬웠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정복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했고 유대인들은 제한 없이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는 그리스인의 도래와 함께 끝났다.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군대는 마케도니아에서 진군하여 짧은 시간에 그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것은 헬레니즘 시대로 알려진 것을 안내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리스 문화(헬레니즘)가 세계를 하나로 묶는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은 그리스 문화와 그 영향에 대해 강한 저항을 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투쟁은 매우 길고 혹독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리스인의 도착의 가장 중요한 영향은 언어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어(코이네 또는 일반 그리스어)가 당시의 링구아 프랑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역과 상업에 사용되는 언어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의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그리스인들은 처음에 개방적이고 관대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종교를 실천하고 준수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할 때 유대인들에게 그곳으로 이주하도록 격려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칠십인역)의 헬라어 번역이 기원전 250

년에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기원전 323 년에 죽자 그의 제국은 그의 지도적인 장군들 사이에서 네 부분으로 분할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제국은 이집트에 기반을 둔 프톨레마이오스 제국과 시리아에 기반을 둔 셀루코스 제국이 되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는 유대인들이 셀루코스 제국의 가혹하고 억압적인 통치에 분노하면서 막을 내렸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유대교를 허용했지만 셀루코스는 그들에게 헬레니즘을 강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다 마카베오와 그의 다섯 아들의 지도 아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은 24 년 간의 전쟁으로 이어졌고 유대인들이 셀루시드를 땅에서 몰아내고 유대인 독립을 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것이 하스모니아 시대였다. Hasmonean 시대는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과 주변 땅을 함락하면서 BC 63 년에 끝났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헤롯 대왕과 같은 일련의 총독이나 속국 통치자를 통해 통치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고대 세계에 어느 정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놀라운 도로망은 복음 메시지가 빨리 퍼질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Social developments

There were also a number of social developments that took place during the intertestamental period. The world that John and shortly after Jesus was born into had been greatly shaped by these social changes.

또한 구약 시대에 여러 사회적 발전이 있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난 직후의 세상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의해 크게 형성되었습니다.

The diaspora

It is quite natural that in times of hardship and persecution people will seek safer places to live. The Jews were no different. As successive empires conquered and took over their lands many left to find peace elsewhere. This is known as a diaspora a Greek word meaning to scatter, spread or disperse. The Jews took their culture and religion and settled in many locations around the Mediterranean and beyond.

The synagogue

Jewish religious life was always centred around the temple. However when the people were taken into exile and no longer had access to the temple a new system of religious practice was needed. This was achieved through the synagogue. The synagogue was a place for teaching and moral instruction. It did not have the ceremony or ritual of the temple. The focus in the synagogue became God's Word (the Torah) and the emphasis shifted from sacrifice to piety and prayer. When the exiles returned to Palestine the Temple and the synagogue system operated alongside one another.

Pharisees, Sadducees

One of the things bible readers often note when switching from the Old to the New testament is the presence of new groups of people.

In particular the prominence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who are not mentioned in the Old Testament. This is because they came into existence during the Intertestamental period.

The Sadducees

The Sadducees were the aristocratic party. They held the important positions within the temple. The party was made up of the rich, powerful and wealthy. This made them deeply unpopular with the common people. The Sadducees worked hard to keep the peace by agreeing with the decisions of Rome. This was why Jesus posed such a threat to them. The Sadducees didn't want a rebellion that would alter the status quo. They were as a party more concerned with politics than religion.

The Pharisees

The Pharisees were the local priesthood who worked in the synagogues. They often came into conflict with the party of the Sadducees. They were known for their emphasis on personal piety. They saw their role in society as trying to keep Jews living righteous lives in a much changed world. The Pharisees were mostly middle-class businessmen who had much more in common with the ordinary people. For this reason they had the support of the people behind them.

The Essenes

The Essenes were a very strict religious purity cult. They lived lives of ritual purity and separation from ordinary people. They chose to live in the desert or wilderness area. It is believed that they emerged in around 100 BC. They are not mentioned explicitly in the scriptures but maybe are alluded to. They are probably best known for the dead sea scrolls which were recorded and stored by the Essenes. Also of interest to us in our study is the theory that John the baptist was an Essene. Whilst some similarities do exist between John and the Essenes we cannot say for certain whether he had any connection with them.

디아스포라 고난과 박해의 때에 사람들이 더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니다. 연속적인 제국이 그들의 땅을 정복하고 점령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평화를 찾기 위해 떠났습니니다. 이것은 흩어지다, 퍼뜨리다, 흩어지게 하다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 디아스포라(diaspora)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지중해와 그 너머의 여러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회당 유대인의 종교 생활은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유배되어 더 이상 성전에 접근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종교 관습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회당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회당은 가르침과 도덕 교육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의식이나 의식이 없었습니다. 회당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토라)이 되었고 강조는 희생에서 경건과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망명자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과 회당 제도는 서로 나란히 운영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성경 독자들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할 때 자주 주목하는 것 중 하나는 새로운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두드러집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약 시대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사두커스 사두개인들은 귀족 정당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당은 부자, 권력자, 부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일반 사람들에게 깊은 인기를 얻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결정에 동의하여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위협을 가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상태를 바꿀 반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보다 정치에 더 관심이 많은 정당이었습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일하는 지역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사두개인들의 당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경건을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변화된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통 사람들과 공통점이 훨씬 더 많은 중산층 사업가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뒤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에센스 Essenes는 매우 엄격한 종교적 순결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의례적 순결과 일반 사람들과의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막이나 광야 지역에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기원전 100년경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들은 경전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암시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Essenes에 의해 기록되고 보관된 사해 두루마리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연구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라는 이론입니다. 요한과 에세네파 사

이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존재하지만 그가 그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The world that John was born into

I hope I have helped you better appreciate the complicated period of time that led to the more familiar world of the New Testament. John was a product of this world. His family had been shaped and impacted by Greek and Roman culture. New ideas had seeped into their traditional Jewish way of life.

So what was life like for the Jews living at John's time? They were of course under the yoke of the mighty Roman empire. The Romans brought order, law and a certain degree of peace. They permitted the Jews a certain degree of freedom. The Jews were allowed to practice their religion and even decide and enforce their own religious laws. However there were limits and the Roman legions were ever present to enforce Roman rule. Worse still was that they demanded taxes. The blood and sweat of the people went to maintain an oppressive dominating regime.

Not only this but the Romans had installed the wicked and cruel client king Herod the Great to rule the area. It was no wonder that the people hoped and prayed to God for His deliverance. Many Jews studied the scriptures and recognised that the time that Daniel had predicted was nigh. Righteous men and women looked forward to the coming of the Messiah during the intertestamental period. Poets sang psalms, and the common people prayed, talked, and dreamed of His arrival.

God as we said had not been inactive. He had been busy preparing and arranging things for the arrival of the Messiah. Part of that preparation was in finding the perfect parents for the prophet who would break the 400 years of silence and usher in a new Kingdom era. They will be the focus of our study next time.

좀 더 친숙한 신약성경의 세계로 인도한 복잡한 시대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이 세상의 산물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유대인 생활 방식에 새로운 사상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물론 그들은 강력한 로마 제국의 멍에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질서, 법, 그리고 어느 정도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를 실천하고 심지어 그들 자신의 종교법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고 로마 군단은 로마의 통치를 시행하기 위해 항상 존재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이 세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인민의 피와 땀은 압제적인 지배체제를 유지하는데 들어갔다. 이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은 사악하고 잔인한 의뢰인 헤롯 대왕을 그 지역을 통치하도록 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기도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다니엘이 예언한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로운 남녀들은 구약 시대에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했습니다. 시인들은 시를 불렀고, 서민들은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그분의 오심을 꿈꿨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실 일을 준비하고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 준비의 일부는 400 년의 침묵을 깨고 새로운 왕국 시대를 여는 선지자의 완벽한 부모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 연구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just one comment to make regarding today's teaching.

God is always close at hand

If there is just one thing you take away from today let it be this. God is an active participant in His creation. He is not looking down and feeling indifferent about what is going on. He is active and engaged. I am sure that there were some amongst the Jews who thought that God had abandoned them during the 400 silent years. They had endured so much and God had watched and done nothing. We know that was not the case. God was doing what He always does. Working things out in the best way possible for those that love and obey Him. Today, in many ways the world is in a mess. We are consumed by a global pandemic. China and America seem to be on course for some kind of confrontation. Christians around the world face hostility and persecution. Immortality is rife and evil abounds. There maybe many reasons to despair or feel fearful and afraid. God may seem distant and far away. Let me reassure you. He is right here, right now and forever.

저는 오늘의 가르침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견을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시다

오늘 단 한 가지만 빼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십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활동적이고 약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400 년의 침묵하는 동안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이 견뎌고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십시오. 오늘날 세계는 여러 면에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전염병에 의해 소비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일종의 대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적대감과 박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멸이 만연하고 악이 만연하다. 절망하거나 두렵고 두려운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은 멀고 멀게만 보일 수 있습니다.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기, 바로 지금 그리고 영원히 계십니다.